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마침표 단계인 만큼 1문단부터 쉽지 않습니다. 조약과 국제 관습법으로 나뉘는 국제법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고 국제기구의 결정을 비교하고 있고, 국제기구의 결정에 대한 예시인 BIS 비율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진술까지 해주면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보를 하나씩 정리하지 못했다면 화제를 잡는 것 조차 힘듭니다. 문장을 하나씩 읽으면서 잘 끌고 와야 합니다.

일단 이 지문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결정의 차이점을 통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BIS 비율 규제가 있을 거고요. 그럼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첫문장부터 호흡이 깁니다... 국제법을 크게 조약과 국제 관습법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네요. 국제법이라는 큰 군집 안에서 나뉜다는 점을 일단 잡고 둘의 차이점을 잡아야 합니다. 조약은 명시적인 합의를 거친 규범, 국제 관습법은 명시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규범입니다. 합의를 비교지점을 잡아줄 수 있겠네요.

국제 관습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라고 했지만 이미 조약의 정의를 체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의하여 창출하는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는 둘 다 국제법이라는 점에 이미 주목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둘의 정의를 읽어보니 결국 둘다 '규범'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국제/법이니까 둘 다 '규범'이겠죠? 공통점까지 잡고 들어갑시다.

>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국제 기구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앞에서는 국제법에 대해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일단 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법/적 / 구속력을 갖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적 구속력은 아마 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힘일 겁니다. 권고적 효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니까요. 이 문장을 보고서 바로 앞에 등장한 국제법과의 비교지점을 잡았거나, 잡을 준비를 하는 게 1등급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미 물음표, 느낌표 단계를 거치면서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 비교지점도 잡는 연습을 여러 번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비교지점을 주진 않았지만 숨어 있으리라 짐작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앞문장의 국제법과 이 문장의 법적 구속력을 얼마나 잘 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면에'라는 점에 주목해

서 읽어도, 이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이 앞에서 나온 국제법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니다.

그나저나 이 문장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을 끌어오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반면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대비되는 개념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이미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라는 점에 반응하셨다면 이미 수능 독서 파트에는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일 겁니다. 혹은 글을 읽는 재능을 타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관련'이라는 점에 주목하셨다면 아마 뒤에서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예시로 함께 등장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실제로 바젤위원회의 BIS 비율 규제가 등장하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던 문장입니다.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앞문장과 얼마나 잘 이어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지문 이해도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중 예약 지문처럼요.

사실 이 문장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겨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가, 작년 수능에서 요구했던 독해력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이런 측면에 목적을 두고 해야해요! 또 딴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앞문장과 이어서 이 문장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는 결국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이죠? 그런데 앞에서는 국제기구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외로 이어서 생각해줘야겠죠? '법적' 구속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속력이 있는 듯하니까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마냥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문장을 읽으면서 'BIS 비율 규제의 경우, 국제기구의 결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도 결국은 국제기구의 결정이라는 점을 잡아 주셔야 해요.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규범적 성격'은 아마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겠지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기구의 결정이 지켜지는 걸 말하니까요. 또 이 문장을 통해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이 엄격히 준수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국제법의 효력은 결국 법적 구속력입니다.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제를 통해 규범 준수를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BIS 비율 규제처럼 제제 없이 규범을 준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성찰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 규제는 국제기구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엄격히 준수되는 규범적 성격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그런 BIS 비율 규제가 어떻게 그런 특징을 갖는지 설명해주는 재진술 문장입니다. 앞에서 이미 BIS 비율 규제도 결국 국제기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BIS 비율 규제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가지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비로소 BIS 비율 규제가 국제기구의 결정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BIS 비율 규제도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엄격히 준수되는 규범적 성격이 엿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제기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구속력'이라는 점을 통해 일반적인 국제법과의 비교지점을 또 잡아줄 수 있겠네요. 법적 구속력이냐, 신뢰 구속력이냐가 다른 겁니다. 잘 구분해야 해요.

그럼 이 지문은 BIS 비율 규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결정이 갖는 신뢰 구속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제 잡고 넘어갑시다!